연말정산 '숫자놀음' 꼼수

metro

'시카고' 오리지널 팀 내한

인건비를 확 줄일거야

신세계 이마트 3년전부터 절감책 치밀하게 추진

인원·복리후생 축소 초점… 직원 반발 결국 법원행

지하철·버스 부채 서민들이 책임져주세요

"오토바이나 타세요" 서울모터쇼 혼다 경매 행사

헬기로 구조 나서는 119특수구조대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을 앞둔 7일 오후 북구 유통단지로 엑스코에서 열린 안전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119특수구조대가 헬기로 VIP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뉴시스

日정부·산케이 한국 협공

산케이 "기소·출금조치에 일본 경악"
日정부, 외교청서 '가치공유' 삭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7일 일본의 외교청서 공개에 맞춰 산케이신문에 수기를 게재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교묘하게 연합작전을 펴는 모양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수기에서 "최고권력자를 둘러싼 사회정치상황을 전한 칼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특파원을 기소하고, 장기간 출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 국민 대부분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던 한국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데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의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재판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칼럼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서술만을 남겼다.

/송병형기자 bhsong@me metroseoul.co.kr

거듭되는 군 비리에 군검찰·헌병 한자리

국방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산비리, 성폭력과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5년 전군 검찰관·헌병수사관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참석인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검찰단, 각군 법무실·헌병실(단), 사단급 이상 검찰부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다. 이번 회의는 군검찰과 헌병의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군검찰·헌병수사관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범죄자를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내에서 구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고,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장은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전군 검찰관과 헌병수사관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더 청렴한지, 공정한지 그리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폐 척결의 선봉장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아기자

상념에 잠긴 지뢰 피해자 7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평화관에서 열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에서 지뢰피해를 본 주민이 상념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차관보 '아베 위안부 발언 지지' 파문

일본군 위안부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 핵심 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지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도쿄에서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군위안부 발언에 대해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동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아베 총리가 8월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건설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 "증오로 가득 찬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최선의 친구가 됐다"며 "전후 70주년에 맞춰진 총리의 방미는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이달 26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된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문구를 넣을 가능성을 최대한 재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미 국무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에 주어를 생략함으로써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단어 선택에서도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려는 의중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미 오바마 1기 정부 때 위안부 명칭도 '성노예'로 바꿀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기류 변화가 엿보인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 외에도 지난 2월 27일 국무부 내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의 소위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일본과 다퉈왔다"며 "역사교과서 내용과 심지어 해역 명칭에 이르기까지 의견 불합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좌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외교당국자의 문제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전략적 시각 자체가 바뀐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육·해·공군 별들 인사 단행

정부는 7일 전반기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은 장경석·김용우(이하 육사 39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특전사령관과 군단장에 임명됐다. 해군은 이병림(해사 36기) 김판규(해사 37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됐다.

공군은 김구영(공사 30기)·이왕근(공사 31기) 소장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공군참모차장과 공군교육사령관에 임명됐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김정식(공사 29기) 중장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상훈(해사 36기) 해병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에 보임됐다.

육사 37기로 박지만씨와 육사 동기인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신 중장은 현 김유근 합참차장이 오는 6월 전역하기 때문에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육사 37기인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기인 이재수 3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유임됐다.

/정윤아기자

연말정산 분석 '숫자놀음' 꼼수

정부 "5500만원 이하 소득자 85% 세부담 없거나 감소"
야당 "2500만~5500만원 구간 40%는 이 나라 국민 아닌가"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정부가 이번에는 '숫자놀음'으로 비판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를 부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센 비판여론과는 달리 실제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자녀 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이 일부 세부담 증가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명 국민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해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의 경우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 연말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10명 중 4명이 세금폭탄을 맞았지만 소득구간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100명중 15명으로 수치가 확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사정을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축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 구간별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5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했다.

/김서이기자 rediu2178@metroseoul.co.kr

DJ 묘역 찾은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교동계 '문재인에 적극 협력' 결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동교동계의 4.29 재보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종식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선거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참여한 권노갑 상임고문, 전직 의원들과 면담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문재인 대표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동교동계의 지원 입장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동교동계가 주장했던 문 대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무슨 조치를 하고 안하고는 문 대표가 할 일이지 우리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며 "합의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잘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저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동교동계의 지원이 재보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점칠 수 없다"며 "당원이기 때문에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계파청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갑자기 '동교동계'란 용어가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현역의원도 저 하나밖에 없고 (동교동계는) 계파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환기자

정치공방으로 흐른 박상옥 청문회

7일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 규명보다는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흘러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수사검사로서 사건 축소·은폐에 박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었지만 여야 간 공방에 묻히고 말았다.

여당 의원들은 알려진 사실을 다시 질의하는 수준에 그쳤고, 야당 의원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있어 박 후보자에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질의를 반복했다.

먼저 여당은 당시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옹호에 나섰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신창언 주임검사가 수사의 핵심사안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책임 지는 책임검사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책임은 주임검사에 있지 않느냐"며 박 후보자의 관여 정도가 적었음을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당시 검사로 부검을 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박 후보자가 사건을 은폐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박 후보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야당의 질의는 박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추궁이 대부분이었다. 질의에 나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던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 기록들은 '어설픈 짜맞추기 수사'임이 밝혀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추가 질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입을 다물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있는 걸 알면서도 수사를 안한건, 검찰로서 자격 미달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며 "고문 척결을 외치며 죽음을 당한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보다 양심 없고 소신없는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청문회의 기간 연장을 두고도 대치했고, 대충 안 질의에 박 후보자가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지가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편 박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모두 규명됐으나 1987년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젊은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조기에 진상규명을 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안상수 당시 서울지검 검사, 사건 직후 경찰의 시신 화장 시도를 막고 고문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수사팀에 주지시킨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이 공개된 자리에 참석했고, 당시 구속됐던 황정웅 대공분실 수사관이 비공개로 참석했다.

/이경환기자 lkh@

자원외교 국조 내달 2일까지 연장

여야가 7일 당초 오늘 마감 예정이었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놓고 이견을 보여 특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왔었다. 청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빈 손'으로 활동을 마칠 위기였다. 이번 합의로 국조특위는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증인을 요구했었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전제로 자신도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서이기자

‘시그니처 아이템’ 대신 ‘대표상품’으로 쓰세요

국립국어원 공모 결과, 시그니처 아이템(signature item)을 대신할 한국어 순화어로 '대표상품'이 선정됐다. 각 회사의 상징적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품이나 제품을 이르는 말이다.

6일 국립국어원은 지난달 2~13일 실시한 5개 용어의 한국어 순화어 공모결과를 공개했다.

공모대상인 용어들은 시그니처 아이템 외에 '인포그래픽'(infographics), '스핀 오프'(spin off),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 등이다.

인포그래픽은 '정보그림', 스핀 오프는 '파생작', 블라인드 테스트는 '정보 가림 평가',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 추천 서비스'로 각각 한국어 순화어가 선정됐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표시한 그림이라는 의미다. 스핀 오프는 TV 드라마, 영화, 만화 분야 본편이나 원작에서 파생돼 나온 작품을 의미한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참여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참가하게 한 다음 반응을 살피는 실험이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국립국어원은 이달 6~17일에는 드론(drone),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브로맨스/워맨스'(bromance/womance)에 대한 순화어를 공모한다.

지금까지 나온 순화어는 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이나 말터의 '이렇게 바꿨어요' 난에서 찾아볼 수 있다.

‘Not “Signature Item”, But Representative Good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as selected an alternative word that will replace the word "Signature Item" This word means the representing product or item which shows each company's uniqueness.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as revealed on the 6th of this month, the result of the "5 Korean Refined Words Contest" which was held from the 2nd to the 13th of last month. The words were signature item, infographics, spin off, blind test, curation service and etcetera. Infographic was changed to "information image," spin off to "derivative work," blind test to "hidden information evaluation" and curation service to "information recommendation service." There are the Korean refined words chosen. Infographic means a picture which expresses information, spin off means works that are derived from TV dramas, movies, animations, original makings. Blind test means an experiment made on people to see their reaction without giving them any information. Curation service is a service that evaluates people's character and recommends contents that best fit them.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ill hold another Korean Refined Words Contest from the 6th to 17th of this month. The words are drone, one strike-out, tipping point and (bromance/womance). The refined Korean words can be viewed at www.korean.go.kr,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uri booklet or the "Before and after" section.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파고다어학원 영어강사 Chris Kim(김준현) 감수

일그러진 ‘큰 바위 얼굴’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너새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은 주인공인 소년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동경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그렸다. 우리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은 소설이다.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삶의 의미를 배워간다는 내용의 이 작품 속 '큰 바위 얼굴'을 닮고 싶어하는 기업이 국내에도 있다.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큰 기업보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큰 바위 얼굴의 꿈'을 기업 철학으로 했다. 1999년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임 최고경영자(CEO)인 이승한 회장은 창립 10주년이던 때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처럼 함께 성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며 '큰바위 얼굴 경영론'을 설파했다.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꿈을 실현하고자 e파란재단도 설립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다.

홈플러스는 이런 노력으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큰 바위 얼굴을 한층 닮아가는 듯 했다. 2, 3세대 가치점, 4세대 세계 최초의 스마트 가상스토어 등을 선보이며 창조적인 혁신으로 세계 유통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홈플러스가 달라졌다.

영세 상인 생존권 위협, 협력업체 불공정 행위, 노사 문제, 자체 브랜드 제품 부실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을 지속적으로 속이며 큰 바위 얼굴 철학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있지도 않은 경품을 내걸고 지인들에게 경품을 당첨시키는 등의 반복되는 경품 사기도 모자라 최근엔 240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보험사 측에 팔아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소비자들이 요청한 고객 개인정보의 보험사 제공 현황도 삭제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들고 나온 '신선식품 500개 품목 상시 할인' 공사는 자체 마진을 줄여 싸게 판매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중복 할인으로 납품업체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다.

홈플러스의 추락한 도덕성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조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이 필요해 보이지만 홈플러스 측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다른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돌리기 급급하다는 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고객 정보 유출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신선식품 500개 품목 상시 할인'으로 여론을 돌리더니 한달 만인 3일에는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상품혁신 전략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는단다.

고객들이 지금 홈플러스에게 궁금한 것은 상품 혁신 전략이 아니다.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홈플러스의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

골프황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개월 만에 복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6일(현지시간) 마스터스 골프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공식 연습 라운드를 갖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연습라운드에서 우즈의 티샷은 여전히 불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본車 사상 최대 리콜

주 원인은 에어백 불량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3사가 지난해 한 납품업체의 에어백 불량으로 220만대의 리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리콜 건수는 사상 최대인 955만대를 기록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국토교통성 보고서를 인용해 2013년의 리콜 건수 798만대보다 약 150만대가량 늘어난 수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불량 에어백은 세계시장 점유율 20%인 다카다 제품이다. 다카다 에어백은 작동시 가스발생 장치의 금속 파편으로 운전자 등이 다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가져왔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다카다에 1만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리콜 대상 확대 요구와 에어백 결함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송병형기자 bhsong@

후쿠시마 방사능, 캐나다 연안서 첫 검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건너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 검출됐다. 사고 이후 4년만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는 지난 2월 19일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 유클루릿 앞바다에서 수거한 샘플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1㎥당 1.4베크렐의 세슘-134과 5.8베크렐의 세슘-137이다.

연구소는 세슘-134의 반감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해양 샘플에서 검출된 세슘-134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7의 경우 핵실험으로도 방출돼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그 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인체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이다.

하지만 켄 버슬러 박사는 수개월 내에 북미 해안에서 탐지 가능한 양의 방사선 물질이 더 많이 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세인기자 seinkim2017@

카드포인트 3년간 4100억 소멸

카드사, 해지 고객에 소멸시효 미고지
삼성이 807억 최다… 현대·신한 뒤이어

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지로 사라진 포인트가 4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카드로 4075억300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 자료'에서다.

카드사 포인트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5년의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카드사 상담원들이 해지시 이 사실을 회원에게 사실상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등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뒀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마다 상이했던 포인트 소멸 시효를 5년으로 통일했다.

관련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이 80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카드(711억5700만원), 신한카드(637억7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이 상담원을 통해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적립한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여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선기자 @metroseoul.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대책 키워드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부채 완화에 총력"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나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 자율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하는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며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대출 중심의 금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출구조도 변동·일시상환 위주로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도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시적, 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며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맞춰진 정책인 만큼 계층과 업권 섬려하다 세분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이용자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서민 취약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내놨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잡은 셈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과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신속·효율적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종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관리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미선기자

우리종합금융 서울본사 이전

우리종합금융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로 서울사옥 이전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에서 열린 우리종금 서울사옥 이전식에서 정기화 대표이사(왼쪽 4번째)와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 3번째)이 사외이사, 고객들과 함께 기념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신한카드, 맞춤형 할인서비스 '샐리' 출시

빅데이터 기반 소비활성화 플랫폼 제공

카드와 가전, 유통, 온라인 기업들이 손을 잡고 공동 마케팅 플랫폼을 만든다.

7일 신한카드는 LG전자와 홈플러스, 11번가 등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사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CLO(Card Linked Offer) 서비스인 '샐리(Sally)'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샐리(Sally)란 별도의 할인 쿠폰이 없이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CLO마케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객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오퍼(Offer)를 중점적으로 개발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09년 CLO 도입 이래 현재 11개의 은행과 카드사가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CLO 연계 거래건수도 2013년 6억9000만건에서 지난해 11억8000만건, 올해 16억건(추정)에 달한다.

공동 마케팅 플랫폼인 '신한 샐리'에는 LG전자, 홈플러스, 11번가 등 국내 다수의 업종 대표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22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패턴 등을 감안한 '코드9'에 맞춰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맞춤서비스 중에 원하는 오퍼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600만 모바일 카드 인프라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는 올 하반기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샐리'에 O2O 서비스와 NFC 결제 등 첨단 핀테크 비즈니스를 접목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업들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신한카드 결제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민간 소비 확대에 따른 내수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휴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비용절감만큼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심리 확산에 '신한 샐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신한 샐리' 서비스를 주요 업종 대표기업들과 공동으로 소비 활성화 플랫폼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연간 100조에 달하는 신한카드 소비인프라를 활용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훈
사장 겸 발행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0년 9월 20일 창간(등록번호 서울 아00...)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최대 300원 인상

제도·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인상
대중교통업계 적자, 서민에게 떠넘겨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률이 최고 28%에 달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150~200원, 지하철 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마을버스와 광역버스의 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광역버스 요금은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성인)를 기준으로 1050원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1200~1250원, 지하철 요금은 1250~1350원이 된다. 인상률은 14.3%에서 최고 28.6%다.

아울러 현행 75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100원~150원 올릴 계획이다. 인상률은 13.3~20.0%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늦춰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지하철 적자가 4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5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 더는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2년 2월 인상된 뒤 3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는 데 있다.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2년 2월이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달 연속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소득도 사실상 그대로라 서민 가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가계 실질소득은 연평균 2.9% 느는데 그쳤다.

대중교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서비스의 개선 없이 적자를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지하철 9호선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소방인력을 배치할 만큼 혼잡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참여연대 대표로 있던 당시에는 시의 버스요금 인상에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시장 후보 시절에는 대중교통업계의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먼저 보여준 뒤 인상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좌승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대중교통업계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무임승차, 노인 교통비 무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3년여 간 요금 인상이 없었으니 이번에는 올려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신혜기자 ssh0820@metroseoul.co.kr

금호·롯데건설, 견본주택 10일 개관

아산모종 캐슬어울림 2차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은 충남 아산에 '아산 모종 캐슬어울림2차' 아파트 견본주택을 10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25층, 24개동 전체 2102가구 규모로 3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해 완판을 기록한 1, 3단지를 제외한 2단지가 이번에 공급된다. 총 794가구 중 군인공제회 회원 물량을 제외한 39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2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동(전용59~112㎡), 총 79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A 288가구 ▲84㎡A 274가구 ▲84㎡B 58가구 ▲84㎡C 128가구 ▲112㎡ 46가구다.

아산시에 적용되는 마지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분양가는 평당 평균 690만원대, 최저 620만원대부터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계약 기간은 4월 29일~5월 1일까지다. 계약금 10%(2회 분납), 중도금 60%(무이자), 잔금 30%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아산 모종동 동신사거리 이마트 아산점 옆(풍기동 184-3)에 있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코스닥 연고점… 660선 안착 7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68포인트(0.71%) 오른 666.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중 고점이자 지난 2008년 1월 15일(673.25) 이후 7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연합뉴스

현대엔지니어링, 해외수주 400억 달러 예상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말 해외 누적수주가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해외 누적 수주액은 341억 달러다. 1분기를 제외한 올해 연간 해외수주 목표액이 64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4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지난 1974년 해외 진출을 시작한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년까지 36년간 누적 해외 수주금액이 80억 123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해외 수주액이 급증했다.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해외 누적 수주액은 261억1554만 달러로 과거 36년간 수주액보다 무려 226.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모두 5건 총 40억96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체 사업금액 26억6000만 달러의 칸딤 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력청으로부터는 가스터빈 발전소 3기(총 6억2000만 달러)를 동시에 수주했다. 캐나다에서는 지열발전소를 수주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건설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최근 4년간 괄목할 성장을 현대차그룹에 편입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와 위상을 얻은 까닭이라고 분석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현대엔지니어링이 당시 해외기업에 팔렸다면 오늘날 현대엔지니어링 신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독일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기자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TV홈쇼핑서 대박

상담예약 4000건 접수

롯데건설이 TV홈쇼핑에서 소개한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에 4000건이 넘는 상담예약이 몰렸다.

롯데건설은 지난 3일 70분간 롯데홈쇼핑을 통해 소개된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방송에서 약 4000건의 상담예약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홈쇼핑을 통해 방송되는 주택상품 상담 건수가 평균 2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관심이다.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초저금리 기조 등과 함께 서울 신규 아파트로는 최초의 홈쇼핑 출연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종완 박사가 출연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환경과 전망에 대해 다뤘다. 또 견본주택 방문이 힘들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인 분양조건과 세부 상품 특장점 등을 소개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홈쇼핑 방송화면.

정찬문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단순히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광고성 방송을 지양하고 수요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사업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홈쇼핑 방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과 9일 1·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계약은 21~23일 사흘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70만원대로,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박선옥기자

마포베라의 품격을
중소형으로 실속있게
총 465세대
트리플 프리미엄 아파트!
교육·문화
한강생활
쾌속교통
59㎡
84㎡
당신의
자부심을 높입니다
마포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파밀리에
마포베라
홍보관
GRAND OPEN
FAMILIE
신동아 파밀리에
마포베라
여기가!
신수동에 있는
트리플 프리미엄이라는데?
뷰티풀 프리미엄
트리플 프리미엄
교육·문화
대표
전화
1600-0212
신동아건설

증권업계, 공동 인터넷뱅크 설립 추진

TF구성 연구 활동·美 공동 탐방 진행

국내 증권사 8곳이 공동으로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핀테크(금융+IT)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자 국내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8곳은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 공동 인터넷 뱅크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뱅크'란 점포없이 인터넷으로만 거래하는 은행을 말한다.

현재 인터넷 뱅크 설립 TF에 참가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구 이트레이드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 8곳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뱅크 설립 TF팀은 금투협과 함께 인터넷 뱅크를 위한 자료 조사와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각 증권사에서 IT와 기획 등 선별된 인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터넷 뱅크 설립을 위해 수익모델을 장출하는 것과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와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임직원들이 금투협 관계자와 함께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최대 인터넷뱅크 찰스슈워브뱅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트레이드뱅크가 소재한 알링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인터넷뱅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오는 6월 말이 지나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뱅크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는 6월 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공동 인터넷 뱅크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때문이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은행 지분은 최대 10%, 산업자본의 경우 최대 4%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 10개 이상의 증권사가 모여야 인터넷뱅크 설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크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동 설립과 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연 3.75% 특판RP 최대 5억

대신證 연금저축 이벤트

대신증권이 연 3.75% 특판RP 매수기회를 제공하는 연금저축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7일 타사에서 연금저축을 이동해오거나 연금저축계좌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3.75% 특판RP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연금저축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5년 경영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대신증권 연금저축계좌의 우수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타 금융사 이전과 신규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 3.75% 금리를 제공하는 3개월 만기 특판RP에 가입할 수 있다.

타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을 이동해오는 고객은 이전금액의 10배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신규가입고객은 자동이체 등록금액의 100배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된다. 신규고객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장광수 금융주치의사업단장(전무)은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투자의 개념을 넘어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상품"이라며 "앞으로 대신증권은 고객들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은 1년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자유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간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NH투자증권 '금융상품 테이크아웃'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상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테이크아웃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NH투자증권 제공

예탁원, 장애인 '자립지원 방식' 봉사

KSD나눔재단, 창립 6주년·장애인의 날 기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 KSD나눔재단은 창립 6주년 및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7일 오전 부산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품질 좋은 우리쌀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지 생산된 쌀 1000포(10kg, 22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또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밀 쿠키 250박스(500만원 상당)도 구입해 선물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12년부터 비장애인 위주의 주택 구조를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4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영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나눔재단의 창립일이자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도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을 도와 자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따뜻한 자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obae@

MG·악사손보, 유상증자 후 다른 행보

악사, 자보 중심 안정적 수익확보 주력
MG, 장기보험 중심 적극적 영업 강화

중소 손보사인 악사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로 상반되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악사는 안정을, MG손보는 적극적인 영업 강화를 대책으로 꼽고 있다.

두 업체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악화된 상태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월 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에 따르면 MG손보와 악사손보는 각각 106.9%, 105.2%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각각 전분기보다 49.8%p, 25.2%p 하락한 것. 이는 전체 손보사 평균(256.3%)보다도 150%가량 낮은 수치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서는 권고치로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업체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RBC비율을 높였다.

악사손보는 지난 2월 350억원, MG손보는 지난달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각각 추진했다. 유상증자분을 반영하면 악사손보와 MG손보의 RBC비율은 1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사손보와 MG손보의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은 엇갈린다.

악사손보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89%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을 중심으로 사업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업확장에 대한 리스크가 당분간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기존의 자보 다이렉트보험을 위주로 한 단기형 상품 판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사업확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유상증자를 마쳤기 때문에 향후 2년간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MG손보는 장기형 상품 판매 확대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불황을 타개할 계획이다.

이는 판매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장기보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MG손보 장기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481억2700만원로 전년 대비 118.6% 증가했다. 이 기간 MG손보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86%에 육박한다.

MG손보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매출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장기보험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시장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경우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드는 만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손익 분기점인 2016년이 넘어서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해석기자 khs840@

SK네트웍스, 6000억 적자에도 사외이사 '돈잔치'

연봉 15%↑·윤남근 전 부장판사 재선임 등 오너형제 가석방 위한 법조인맥 동원 의혹

SK네트웍스가 6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내고도 작년 사외이사진의 연봉을 15%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사외이사는 공교롭게도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직후 재선임 돼 SK그룹 오너형제의 가석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상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회사가 적자를 내고 인원감축과 평균연봉삭감 등 3000여명의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윗 이사 등에게 고액연봉을 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네트웍스 윤남근 이사는 작년 연봉으로 5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6%(700만원) 인상된 것이다.

송하중·김성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의 연봉은 5600만원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전년보다 800만원 올랐다.

그러나 작년 연봉 책정 기준이 되는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실적은 저조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2013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5679억7800만원으로 적자전환됐다. 이때 매출액은 25조9753억6137만원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1조9601억4280만원(7.0%)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보다 107억3643만원 줄어든 2408억2353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에도 사외이사진의 연봉이 오른 배경에는 가석방 대외로비라인에 대한 모든 인맥을 동원한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SK네트웍스가 부장판사 출신은 이사를 재선임한 건 지난해 3월 21일이다. 공교롭게도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이던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이해 2월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최태원 회장도 형이 확정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인데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윤 이사를 붙잡은 것은 다분히 SK그룹 오너형제의 가석방 로비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직원들에겐 실적 부진의 부담이 전가됐다.

작년 SK네트웍스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900만원) 감소했다. 직원규모도 줄었다.

2013년에는 3661명(비정규직 885명 포함) 이었지만 작년 총직원수는 3301명(비정규직 493명 포함)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사외이사진의 작년 보수는 2013년에 비해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했던 거마비, 출장비 등 현금성 비용을 보수액으로 통합 산정했기 때문에 작년 보수가 전년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글로벌 경쟁력, 원천기술 확보에 달렸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 '3M' 성공사례 강조

"3M과 같이 효성도 원천기술을 확보해 응용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은 7일 CEO레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누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잘 응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3M을 예로 들었다.

그는 "흔히 스카치테이프 같은 사무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3M은 사실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가운데 84%를 부품소재제품이 차지하는 B2B 기업"이라며 "이들의 강점은 바로 기술력이다. 얼마 전 방한한 잉게 툴린 3M회장은 '3M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제품, 고객이 꿈꾸는 미래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일례로 3M은 접착제라는 한 가지 원천기술을 갖고 탈부착이 자유로운 포스트잇은 물론 극한 상황에서도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 비행기용 접착제까지 생산하고 있다"며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응용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지난 5년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회사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원천기술을 확실히 확보하고 기술의 수준을 글로벌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 기술을 응용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먼저 찾는 회사, 고객과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신뢰의 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이름기자 roman@

삼성전자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엣지 디자인'·공기청정기능 추가

삼성전자가 7일 김연아의 이름을 딴 에어컨 '김연아 스페셜'을 출시했다.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은 온도·습도·청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모서리에 '엣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제품은 트리플 청정센서를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에어 3.0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며, 'PM2.5 필터시스템'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과 1등급의 150% 이상 효율을 갖춘 에너지 프론티어를 달성했다. 또 청정기능 사용 시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아 자주 사용해도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을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 소형 공기청정기를 증정하고 삼성 멤버십 고객에게 24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 되지만 냉방·제습은 물론 실내 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한 청정 기능에 엣지 있는 디자인까지 겸비한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으로 고객들이 좀 더 쾌적한 삶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은 52.8㎡ 2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각각 279만 9000원과 269만 9000원이다.

최광주 두산 부회장(왼쪽)이 조규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에게 두리모 자립지원금 1억2000여만원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 제공

두산, 두리모 지원금 1억2000만원 전달

두산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두리모 자립 지원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두리모는 미혼모라는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한부모가족센터에서 시민공모를 통해 지정한 말이다.

'두리모자립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두산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함께 진행해 온 사업이다. 두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된다.

두산은 이 사업을 통해 두리모들에게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한 두리모에게는 별도의 자립 지원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linsound@

한국타이어, 獨 스포츠카 매거진 '최고점'

한국타이어는 '벤투스 S1 에보 2'가 독일 스포츠카 매거진 '아우토 빌트 스포르츠카'의 성능 테스트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은 독일의 매거진이 1~3월에 주관한 여섯 번의 성능 테스트에서 최고성능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벤투스 S1 에보는 유럽지역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포츠 드라이빙용 타이어다.

빗물로 인해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이 줄어 자동차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핸들링과 제동력에 강점이 있다.

마른 노면에서도 핸들링과 제동력, 소음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모든 성능이 균형을 이루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사측은 전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카용 타이어로 최고 성능 평가를 받은 것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품질력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현대제철 안전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여전

정몽구 회장 특명에도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안전장치·근로자 안전의식 교육 강화" 지적

현대제철 안전공장에서 이달 조한 근로자가 쇳물분배기에 추락해 숨지면서 업계 안팎으로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내린 특명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7일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경찰과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과 대화하며 상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대책은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전 사업장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인원과 시설물, 교육과 예산을 확충해 강화하고 있다. 점검반도 운영하며 철저한 체계를 갖춰나가는 데 조직원들이 일심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최근 4년간 가스 누출을 비롯한 각종 사고로 18명의 근로자가 숨을 거뒀다.

2013년 대국민 사과와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정 회장은 지난해 당진공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련 투자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리라는 특명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은 안전관련 투자예산을 기존 1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4배 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인력은 200명 규모까지 늘리고, 상설순회점검반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난해 6월 순천공장에 이어 올해 1월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를 끝으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혜철 신성대학교 제철산업과 교수는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실족사고나 추락사고가 한 번 발생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안전교육의 경우 시간 때우기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 개개인이 작업현장에서 지니는 긴장감과 마음가짐일 것이다. 시설물 확충과 함께 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돕는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에서 허술한 안전관리로 또다시 신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번 사고는 추락과 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현장에 예방한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 등 18명의 노동자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작업 도중 잇달아 사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사왔다"며 "이번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신재사망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정필기자 [illegible]

"모터사이클 경매로 드려요"

혼다코리아 모터쇼 행사
골드윙 등 전시모델 6종

혼다코리아는 2015 서울모터쇼에서 모터사이클 경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들은 골드윙(GL1800), F6C, CB1100EX, MSX125, PCX, 인테그라 등 전시된 혼다 모터사이클 6종 중 구입을 희망하는 모델에 원하는 금액을 이벤트 카드에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행사 종료 후 입찰을 통해 차종 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고객이 해당 모터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모터사이클 경매 프로그램은 혼다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이벤트다. 서울모터쇼에서 혼다 전시관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2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혼다 전시관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상시 운영되며 번호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첫 더블데크 운행

LGU+ 신사옥에 설치
운행 효율 1.8배 높여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신사옥에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1개의 승강로에 2대의 엘리베이터를 상하로 연결해 동시에 운행하는 복층 승강기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지에서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층 버스를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 개의 승강로에서 두 대의 승강기를 운행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용 면적을 늘려준다.

기존 싱글 데크 엘리베이터 대비 운행 효율을 최대 1.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및 개념도.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지난달 준공을 마친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LG유플러스 신사옥에는 2대의 더블데크 엘리베이터와 4대의 싱글데크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이들 엘리베이터에는 인공지능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승객이 가고자 하는 층(행선층) 별로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치해주는 행선층 시스템이 적용돼 출근시간 등 피크타임 때 혼잡도를 줄였다.

더블데크 엘리베이터에는 이 외에도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전력회생형 인버터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지진에 대비한 지진관제운전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감시하는 원격관리시스템(HRTS) 등이 적용됐다. /이정필기자 [illegible]

에쓰오일,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1억원 후원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안종범 에쓰오일 부사장(왼쪽)이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에쓰오일 본사에서 신은숙 하트하트재단 이사장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에쓰오일은 7일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활동 지원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하트 해피 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트 해피 스쿨'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출신으로 고등학교와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전국 45곳의 초등학교에서 연주회와 퀴즈 영상 교육을 통해 장애 이해와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발달장애 청소년 50명의 단원들이 1000번 이상의 연습 끝에 감동의 연주를 들려주어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린다. /[illegible]기자

한국지엠, 2차 협력업체 방문··동반성장 앞장

한국지엠은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대구 지역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 한미ADM과 영신기전공업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에디발도 크레필디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이 동행했다.

호샤 사장은 "오늘의 한국지엠이 있기까지 우수한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일 대구 지역 협력업체를 방문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가운데)이 한덕호 한미ADM사장(왼쪽)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자격사무에 격려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한국항공우주, MRO시장서 '우뚝'

2020년까지 4조원대 시장 성장 예측
연간 예상수익 1조6000억원 웃돌 듯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10년부터 공을 들인 항공정비(MRO)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볼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 MRO 시장은 4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KAI가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연간 1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협의를 통해 사업부지·정비시설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 MRO시장은 블루오션이다. 2013년 한국의 MRO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이지만 국내 종합 MRO 업체는 전무하다. 국내 다수 LCC업체들은 해외업체에 정비부문을 의존하고 있어 현재 MRO분야의 해외업체 의존도는 53%에 이른다.

현재 청주시와 사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의지를 밝혔다. KAI의 경우 사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민간항공기 MRO 부문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아 KAI의 MRO 시장 독식이 예상된다.

KAI 관계자는 "KAI는 지난해 12월 사천시와 항공MRO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4차례에 걸쳐 실무운영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통해 KAI는 사업 부지 조성과 컨소시엄 업체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본격적인 종합 MRO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지금까지 해외업체에 의존하던 국내 MRO 수요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KAI는 앞서 2013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에어인천, 제주항공 등 국내 3개 항공사와 MRO 협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SIAEC, 일본 JALEC 등 해외 MRO 전문업체와도 협약을 마쳤다.

KAI 관계자는 "해외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약 3000대 이상의 운항기 정비·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매출액 2조3149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 당기순이익 1111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8%, 영업이익은 29.5%, 당기순이익은 22.9% 각각 증가했다.

/양소리기자 Newsun@metroseoul.co.kr

삼성, 3년째 美 '에너지스타상' 최고

LG도 2년 연속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시상하는 '2015 에너지스타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에너지스타 어워드는 미국 정부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만여개 단체·기업을 평가해 시상하는 환경 에너지 분야 최고 상이다. 삼성과 LG는 각각 3년, 2년 연속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711개 모델에 '에너지스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가전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중 347개 모델은 '최고효율' 등급을 받았다. 제품포장, 홈페이지, 홍보영상, SNS 등을 통해 '에너지스타'를 홍보한 점도 인정받았다.

LG전자도 같은날 500여개 모델이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제품 매출도 2013년보다 17.8% 늘었다. 특히 에너지 소비를 절반 감축한 '에코 하이브리드 건조기',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드럼세탁기 등이 LG의 대표 에너지스타 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LG전자는 '올해의 파트너상'과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상'을 각각 4년, 2년 연속 수상했다. 삼성전자도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상'을 수상했다.

/김성훈기자 sea@

SKT, 양자정보통신 상용화 추진

우리로광통신과 양해각서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광검출소자 제조사인 우리로광통신과 양자암호통신 핵심부품 국산화·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 최진성 종합기술원장과 우리로광통신 박세철 대표는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계결식에 참석해 양자암호통신 핵심 부품인 '단일광자 검출소자'의 상용화와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반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단일광자 검출소자'는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센서로서 양자통신,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양자기술 산업 분야 전반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로광통신의 '단일광자 검출소자'가 상용화될 경우 우수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져 고가 장비 문제로 위축돼 있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2011년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양자암호통신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단일광자검출기술, 간섭계 기술, 추적기술 등을 확보한 상태다.

SK텔레콤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오른쪽)과 우리로광통신 박세철 대표는 7일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반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양자암호통신 핵심부품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제공

/이지하기자 hesrthy2@

LG전자 '꽌윈Ⅲ TV'로 中 프리미엄 시장 공략

트렌드 반영 대형화

LG전자는 중국 시장에 '꽌윈Ⅲ TV'(UF8580)를 출시하며 현지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꽌윈 TV 시리즈'는 2013년 중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꽌윈'은 승진의 운을 뜻하는 '관운(官運)'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 출세 내지 성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번영, 평안, 순조로움을 상징하는 '배(Ship)' 모양의 스탠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꽌윈Ⅲ TV'는 울트라HD(UHD 3840×2160) 해상도에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현지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65인치형과 60인치형으로 출시된다.

기존 꽌윈 TV 시리즈의 크기는 42인치형과 55인치형 등 60인치 미만이었다.

디자인에도 세련미를 더해 기존 제품이 동양의 범선(帆船)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서양식 요트의 간결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마트 TV 운영체제(OS)로는 '웹OS 2.0'을 적용했고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교육, 맛집, 건강 등 특화 애플리케이션 12종을 기본으로 실었다.

/김성훈기자

LG전자는 7일 세 번째 꽌윈 TV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며 현지 프리미엄TV 시장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델이 '꽌윈Ⅲ TV'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KT 'LG워치 어베인' 단독 판매

23일까지 올레·액세서리샵 앱서 예약

KT는 7일부터 23일까지 'LG워치 어베인'을 올레샵과 올레 액세서리샵 앱을 통해 국내에서 단독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MWC2015에서 첫 공개된 'LG워치 어베인'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워치다. 앞서 발매된 'LG워치 어베인 LTE'보다 무게가 66.5g으로 절반 수준으로 가벼워졌고 두께는 10.9㎜로 약 20% 얇아졌다.

LTE 모델과는 달리 별도 통신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1회 충전으로 약 1.7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시계줄(스트랩) 또한 기존 시계와 호환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LG워치 어베인'의 소비자 가격은 39만6000원(소비자 가격)이다. 이날부터 올레닷컴 액세서리샵 또는 앱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KT는 오는 23일까지 예약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이노 Flask 스피커와 젠하이저mm50i, 슈어SE215, LG HBS900 중 한가지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며 24일부터 'LG워치 어베인'과 함께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지하기자

KT는 오는 23일까지 LG전자 'LG워치 어베인'을 올레샵(shop.olleh.com)과 앱을 통해 국내에서 단독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KT 제공

LGU+ 'HD 사내방송' 전국 수협에 구축

LG유플러스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무선방식의 비디오 전용 액세스포인트(AP)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HD 사내방송' 솔루션을 선보이고 전국 650개 수협 지점에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자체 제작한 사내방송용 VOD나 실시간 촬영 영상을 LG유플러스의 가상 서버와 클라우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통해 각 지점과 사무실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의 'HD 사내방송' 솔루션은 중앙에서 송출하는 방송 콘텐츠를 TV 셋톱박스에 연결된 무선 AP에서 수신하면 사무실 내 어느 위치에 TV를 설치하더라도 무선으로 사내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도 별도 재구축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또 사내방송을 송출하는 담당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웹(HTML5) 기반의 관리 툴을 제공해 손쉽게 사내방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안드로이드 IP 셋톱박스를 통해 IPTV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내방송을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비스 추가·확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 전국 650개의 수협 지점은 수협방송에서 제작하거나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사내방송 콘텐츠를 HD급 화질로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다.

/이지하기자

이마트, 인건비 감축 노린 新인사제 논란

고용안정 취지와 달리 3년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직원 소모품 인식, 처우축소·배려지양 등 적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가 지난 3월 1일자로 신(新)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 측은 고용안정과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2012년도부터 준비해온 인건비 줄이기 정책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하나 의원실에서 제공한 신세계 이마트 경영전략실 인사팀 명의의 2012년 중점 추진 업무 PT 자료를 보면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2012년 1월부터 '인사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료에는 직원들의 '처우축소 점장을 통해 현장 스스로 인원 감축', '조기 케어나 보호 자원의 접근 지양' 등의 방안이 적시돼있다. 이미 3년 전부터 신세계 이마트는 직원들을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고 인사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공통직, 전문직1, 전문직2(캐셔·일반직 진열사원) 3개 직군으로 분리됐고 직군별로 직급이 존재했다. 이러한 인사체계 내에서 직급·직군·직책 간의 이동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신세계 이마트는 전문직1의 직급을 기존 CA1~CA3 3단계에서 CA5까지 5단계로 늘렸다.

이어 지난달 1일 또다시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인사체계를 5단계의 상하관계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제도다. 임금인상은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직책승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기존 직급 승급과 직군이동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던 제도가 사라진 것이다. 상위밴드로 승급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승급이 되지 않은 노동자는 임금인상 없이 근로를 해야 한다.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마트가 부당한 인사제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신인사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직원들 사이에 돌았다. 이에 이마트 내 3개 노동조합은 사측에 자료제공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전 논의를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됐다.

그러던 중 제도 도입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않은 시점인 1월21일 3시간 남짓 본사에서 점포장들에게 신인사제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틀 뒤 각 점포 직원들을 상대로 1시간 정도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녹화·녹음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설명회 후 동의서 작성은 부서·사번 이름을 명기하게 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름과 부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나? 보복이 두려워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약 1만7000명의 전문직2 사원에게는 설명도 없었고 동의주체에서 제외됐다.

신세계 이마트가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했다는 이번 신인사제도는 2012년 제시된 '인사비비율 절감 방안'에 적합한 인사제도다.

이마트의 이런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액만 13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여서 이런 인사정책이 여타 유사 업종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6일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마트 사측은 이에 대응해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조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더욱 수평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번에 도입하는 누적식 연봉제를 통해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or@metroseoul.co.kr

이마트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노동 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반동의 신세계 이마트의 직무급제 도입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신세계 이마트 경영전략실 인사팀의 '2012년 중점 추진 업무' PT자료 중 일부. 인사비비율 감소가 주 내용이다.

오픈마켓 패션잡화수수료 12% 동일…담합?

김영환 의원 "판매수수료, 광고비용 등 불공정행위 만연"

분류	패션잡화	도서 / 음반	식품 / 건강	생활용품	가전 / 컴퓨터
G마켓	12%	12%	8~12%	8~12%	6~8%
옥션	12%	10~12%	8~10%	10~12%	6~8%
11번가	12%	11%	12%	12%	6~8%

오픈마켓(G마켓·옥션·11번가 등)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이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서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수수료는 패션잡화 12%, 생활용품 8~12%, 도서·음반 10~12%, 식품·건강 8~12%, 가전·컴퓨터 6~8% 수준이다.

오픈마켓의 평균 수수료는 8~12%대로 평균 30%에 달하는 백화점 수수료보다는 절반이지만 구조 상 판매자들은 1~2%의 마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한 글로벌 기업 이베이는 미국 내 패션잡화 판매 기준 수수료가 50달러 이하 12%, 50~1000달러 9%, 1000달러 이상 2%로 가격별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방식 판매의 경우 수수료는 9% 수수료의 최대 부과액은 100달러로 한정된다. 하지만 국내 오픈마켓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는 12%로 동일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영환 의원실 측은 밝혔다.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82.7%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평균적으로 수수료 1200만원, 광고비 7300만원, 부가서비스 38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오픈마켓 광고는 쇼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품명 옆 아이콘 노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상품의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소비자가 판매나 소비자 선호 순위인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입점업체에는 광고구매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광고 구매를 했어도 메인 화면에서 배제되는 등 오픈마켓 광고정책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연간 거래액 18조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며 "상품 판매수수료, 광고와 부가서비스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상생을 위한 방지책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대한민국 3천만 고객이 KB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 20.2% · 판매고 1위

고객님이 주신 믿음,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1등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펀드 판매잔고

A 12

작년 퇴직연금 운용 성적표

DC·DB 수익률 국민銀 1위

20 경제

市銀 3년간 펀드 수익률

국민 20.2%로 나타나

* 동 수익률은 당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를 3년간 보유한 경우의 판매잔고 가중 평균 수익률로서 개별고객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한화갤러리아… 임신·출산 女직원 복지 '톡톡'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임신·출산·육아 등을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며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철학이 바탕이 됐다.

특히 한화갤러리아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준다.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산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과 배우자 임신·출산 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임신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다. 1년의 육아휴직과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와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 중이다. 자녀 나이 만 9세까지 1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조정 가능하고 만 9세 이하의 조건만 충족되면 사용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더불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겐 근로시간도 단축한다. 올해 7월부터는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함께 최대 3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임산중인 직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패용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도록해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제공

업계 첫 난임女 임신지원 휴가·난임 시술비 지원… 취학전후 돌봄 휴가도

갤러리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임신지원휴가 및 난임시술비 지원	업계 최초로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	자녀 나이 만 9세까지 1시간의 출·퇴근 시간 조정 만 9세 이하의 조건만 충족되면 사용 기한에는 제한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취학전후 돌봄 휴가	취학전후 자녀 양육 관련 1개월 휴가 제공
육아휴직제	만 8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 1명 당 3회의 육아휴직 허용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휴가

또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는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유통업계 처음으로 시행,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본사가 입주한 사옥 대원로 건물에는 그룹 계열사와 공동으로 회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인 남성직원들도 배려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2명의 남성직원이 올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제도도 도입됐다.

이밖에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운영 중이다.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중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90일의 휴가를 준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한화 직장어린이집 /한화갤러리아 제공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가족친화기업 인증 후 일·가정 양립제도 수혜 직원 3배 늘어"

한화갤러리아는 '임직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라는 그룹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임직원들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행복 수준이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2013년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주효했다.

채용 과정과 평가, 급여수준, 복지 혜택 등에 성차별이 없고 모성보호 프로그램 및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회사의 일·가정양립 제도가 단순 구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제도적 뒷받침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화갤러리아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직원 현황을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원 수혜를 입은 여성 직원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0월에는 29명으로 늘었다.

또 임신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맘스 패키지 혜택 인원도 2013년 16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 수혜를 받은 직원이 2013년 10월~12월 32명에서 2014년 1~10월 9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러쉬 '환경·동물·사람' 어울림을 노래하다

내달 9일 '냄새나는 콘서트 4'

힙합·발라드 등 최고 아티스트 총집합
제품 구매고객 '예매권 증정' 이벤트도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5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냄새나는 콘서트 4'를 개최한다.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공연은 물론 러쉬 제품과 다채로운 아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콘셉트의 복합 문화 콘서트다. 러쉬는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해왔다.

아워룸에서는 신선한 입욕제를 직접 만드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가수 겸 프로듀서이자 화려한 입담을 뽐내는 '윤종신'이 진행을 맡았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발라드 왕자 '성시경'을 비롯해 한국 힙합계의 전설 타이거JK, 윤미래, 비지로 구성된 'MFBTY', 발라드 요정 '박정현', 라이브의 황태자 '이승철', '신지'가 각 멤버로 합류된 '쿨'까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인다. (추후 사정에 따라 아티스트 변경 가능)

'환경·동물·사람' 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러쉬의 다양한 캠페인도 만나볼 수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힘 나는 한 끼를 선물하는 '기브미(米) 캠페인', 위안부 관련 역사 교육과 자료 보존 후원을 위한 '봐(花)듯 나비 캠페인', 탈북 청소년들에게 취업 교육과 인사 기회 제공을 위한 '두드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콘서트에 녹여낼 예정이다.

아워 룸에서는 영국 기신 셰프와 함께 국내 미 출시 입욕제 및 인기 입욕제를 직접 만드는 체험 이벤트,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는 러쉬 스파 체험 등 풍성한 아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러쉬는 전국 59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콘서트 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5만원부터 17만원까지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좌석 등급별(A석·B석·C석) 예매권 선택이 가능하다. (조기 품절 가능, C석 매진 조임박)

콘서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러쉬 홈페이지(www.lush.co.kr)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ush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2357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이랜드, 글로벌 호텔 체인 팔 걷어

사이판 켄싱턴호텔 새단장

이랜드가 글로벌 호텔·리조트 체인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랜드그룹은 7일 박성경 부회장과 엘로이 이노스 마리아나제도 주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판 켄싱턴 호텔 리뉴얼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리뉴얼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랜드는 2011년 인수한 팜스리조트와 사이판 코럴 오션 골프리조트(C.O.P)와 PIC리조트 등 사이판에서만 3개의 호텔과 리조트, 700여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사이판 최대 기업으로 자리 매김해 있다.

이번에 켄싱턴 호텔로 새롭게 선보일 팜스리조트는 연면적 3만8801㎡ 규모로 313개 전객실이 오션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판에서도 경관이 제일 뛰어난 파우파우(PAUPAU)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랜드는 전면적인 개편 공사를 통해 객실은 물론 휴양시설과 편의시설 전부를 새롭게 바꾸고 가족단위 고객이 고품격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리조트 콘셉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사이판 켄싱턴 호텔을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가족 휴양호텔로 선보여 호텔·리조트 사업부문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더샘 '김중천 효과' 100억원대 적자 탈출

주요상권 중심 매장 재편
해외매장 확대도 힘쏟아

몸집 이후 100억원대 적자를 이어온 더샘이 지난해 적자폭을 줄이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초 취임한 김중천(47·사진) 대표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샘은 지난해 매출 440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더샘은 지난 2010년 한국화장품이 야심차게 내놓은 브랜드숍이다. 그러나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모기업인 한국화장품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1년 171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한 이후 2012년 131억원, 2013년 162억원으로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2013년 한국화장품은 서울과 대구 사옥의 전체 매각금인 894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인 670억원을 더샘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했다. 이 같은 투자에 일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100억원대 손실을 보였던 더샘이 지난해 적자 폭을 줄이면서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 취임한 김중천 대표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토니모리 출신인 김중천 대표는 '서가 화장품 신화'로 불린다. 토니모리 재직 당시 부임 1년만에 매출을 10배 늘려 주목을 받았다.

김 사장은 더샘 취임 이후 비효율적 매장을 줄이고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모픈하는데 주력했다. 2013년 130여 개였던 매장 수는 현재 170여 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더샘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매장 확대보다는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한 매장 오픈 전략을 진행해 매장당 매출액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에코 소울 키스 버튼 립스' '에코소울 온천수 비비 케익' 등 히트상품도 배출했다. 올해 역시 국내에서 매장 효율화 전략을 이어간다. 아울러 해외 매장 확대에도 주력한다.

한편 여전히 90억원대의 큰 적자 폭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브랜드숍 시장 상황이 예년만 못한 데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김수정기자

"나이·학력,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강강술래, SMP 4기 모집
기숙사·자녀학자금 지원

숯불구이한식전문점 '강강술래'를 운영중인 진한(대표 최종만)이 선채용 후교육 프로그램 SMP(Star Manager Program) 과정에 나이·학력·전공 제한을 없앤 열린 채용을 실시한다.

8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부씩 이메일(pm2564@sullae.com)로 접수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총 5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ulla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MP 과정은 외식 분야의 우수한 인재채용과 육성을 목표로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6개월 동안 조리와 서비스,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외식관련 이론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근무, 벤치마킹 투어 등을 진행한다.

입사와 동시에 정직원 급여를 지급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을 위해선 서울과 경기에 운영중인 16곳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대 보험 적용과 경조사 지원을 비롯해 자녀학자금 지원(3개월 이후) 등 동일한 복리후생제도 혜택도 적용 받는다.

최종만 진한 대표는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업준비생은 물론 열정을 갖고 취업전선에 나선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S6·S6 엣지, 美서 '공짜'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10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지원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출고가는 각각 80만원대와 90만원대로 책정됐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7일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에 따르면 갤럭시S5를 반납하면 200 달러를 보상해주는 보상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S4를 반납해도 150 달러를 보상해준다. 이 회사는 2년 약정시 갤럭시S6(32GB 제품)를 199.99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 스프린트는 무제한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한 달 요금 20 달러를 포인트로 돌려줘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다. 최근에는 갤럭시S6 엣지(32GB)도 무료로 살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스프린트는 월정액 8만원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 한해 갤럭시S6를 2년동안 공짜로 빌려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원금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보상판매를 진행할 때 제조사가 지원금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미국과 달리 거의 제값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국내에선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판매점 지원금은 15%에 불과하다. 이를 환산하면 3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S6의 출고가가 85만원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이통사의 지원금을 모두 받더라도 50만원이 발생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단통법이 있는 상황에서 높은 보상액을 지급하는 보상판매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조금 지급 액수나 규모 등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단통법은 만들었지만 되레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XYZ프린팅, SLA 방식 노벨 1.0 출시

대만의 3D프린터 제조업체 XYZ프린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3D프린터 노벨 1.0을 출시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XYZ프린팅은 7일 서울 한남 에드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D프린터 노벨 1.0을 소개했다. 노벨 1.0은 SLA 방식으로 액체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 빔을 투사해 결과물을 조형한다. 최소 0.025㎜까지 정밀도를 높여 보석 시제품, 의료용 치과보형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3D프린팅 산업은 '제 3의 산업혁명'을 이끌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4년 약 11만대에 달한 3D프린터 출하량이 2015년에는 약 22만대로 증가,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해 2018년에 23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싸이먼 선 XYZ프린팅 회장은 "XYZ프린팅이 또 한번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올해는 노벨 1.0과 함께 XYZ프린팅이 3D프린터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등진 지사장은 "올해 다빈치 주니어와 푸드 프린터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푸드 프린터의 경우 CES에서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한국에서도 제빵회사나 커피 체인점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가격은 229만9000원으로 오는 5월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지은희기자 euni718

싸이먼 선 XYZ프린팅 회장이 7일 서울 한남 에드워에서 열린 노벨 1.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XYZ프린팅 제공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5조9천억

2분기는 7조원 예상

지난해 3분기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조9000억원, 매출 47조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업계 컨센서스(시장 예상치 평균)인 5조43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이번에도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실적 회복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5조2900억 원에 비해 11.53% 증가한 반면 매출은 지난해 4분기(52조7300억 원)보다 10.87% 줄었다. 이는 증권사들이 집계한 컨센서스인 50조1112억 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계절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비수기인 1분기는 매출이 줄어드는 대신 마케팅비는 덜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게 전자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실적은 강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4조600억원)이 3년 만에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4분기 다시 5조원대를 회복했고 이번에는 5조원대 후반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윤지호 이베스트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 잠정 실적은 최근 높아진 기대치마저 넘겼다"며 "반도체가 3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1분기 실적이 내용 면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2분기 성적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과 전략제품인 갤럭시S6가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과 관련 "2분기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는 나쁘게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분위기면 2분기 영업이익이 7조원 후반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기자 ssw@metroseoul.co.kr

에이수스(ASUS)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랜스포머 북 Chi 시리즈를 비롯한 2015년 상반기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99

에이수스 '가성비' 강조한 노트북 공개

맥북보다 0.5㎜ 얇아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에이수스가 두께와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 지속 시간을 극대화 시킨 노트북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이수스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랜스포머 북 Chi 시리즈' 3종과 울트라북 젠북 UX305를 공개했다.

트랜스포머 북 Chi는 마그네틱 힌지를 적용해 스크린과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는 투인원 노트북이다. 맥북에어보다 0.5㎜ 더 얇다. 풀HD(1920 X 1080) IPS 디스플레이와 인텔 코어 M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다. 또 SSD를 탑재해 기존 하드디스크 대비 최대 9배 빠른 읽기 쓰기속도를 제공한다. 12.5인치의 화면 크기에 7.6㎜의 두께를 갖춘 T300 Chi를 비롯해 T100 Chi(10.1인치, 7.2㎜), 750g 무게로 휴대성을 강화한 T90 Chi(8.9인치)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울트라북 젠북 UX305는 QHD를 넘어선 3200 X 180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울트라북으로 최대 8GB 램과 256GB SSD를 장착했다. 디스플레이는 표준 HD 해상도보다 5배 높은 해상도와 276PPI(인치 당 픽셀 수)를 제공한다. 화면 크기는 13.3인치, 무게는 12.3㎜다.

곽문영 에이수스코리아 마케팅팀장은 "젠북 UX305는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베스트 100에 선정됐다"며 "제품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구성된 것 등 이전 시리즈와 외관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4%정도 되지만 신제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 가격은 트랜스포머 북 Chi 시리즈가 ▲T300 109만9000원 ▲T100 59만9000원 ▲T90 49만9000원이며 젠북 UX305는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이 129만9000원, 풀HD를 장착한 하위 제품이 89만9000원이다. /황재용기자

“아픔 있어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영화 '장수상회' 윤 여 정

흔히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굳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윤여정(67)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나이나 세월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유연함이 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감독들에게도 "나는 감독의 도구니까 내 나이는 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대(大)배우'가 아닌 '노(老)배우'라고 능청 수 있는 여유에 그 유연함이 있다.

최근 주연을 맡았던 영화 '돈의 맛'과 '고령화가족'에서 윤여정은 중년을 넘어선 나이에도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당당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관객의 뇌리에 남았다. 그러나 오는 9일 개봉하는 '장수상회'(감독 강제규)에서는 앞선 작품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꽃집을 운영하는 소녀 같은 할머니 금님이다.

한국 상업영화에서는 흔치 않은 노인 중심의 영화다. 윤여정은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늙으면 기우가 많아지잖아요. 나는 늘 변신만 의하는 사람이라 반가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박근형 선생님과 내 황혼의 로맨스를 누가 궁금해 할까 싶기도 해요(웃음). 하지만 이 영화가 잘 돼 이런 종류의 작품이 많이 나오면 좋은 일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영화는 무뚝뚝한 성격의 70대 노인 성칠(박근형)이 앞집에 이사 온 꽃집 여인 금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사랑을 그린다. 영화 후반부에는 성칠과 금님,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비밀을 통해 뜻밖의 감동도 함께 선사한다. 금님은 반전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기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였다.

"시나리오 읽을 때 처음에는 좀 오그라들기도 했어요. 금님이 왜 성칠에게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는 나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영화가 '황혼의 로맨스'로 소개되고 있지만 나는 이 영화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금님을 보통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평소 꽃무늬 옷이나 분홍색 옷은 입지 않는다는 윤여정은 이번 영화에서 화사한 톤의 의상을 입고 부드러운 매력을 펼쳐 보였다. 성칠과 금님의 놀이공원 데이트 신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금님의 소녀다운 면모를 잘 보여준다. "놀이기구 타는 거요?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금님은 놀이기구 타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안 좋았거든요. 그 장면은 정말 '연기'였어요(웃음)."

영화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금님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한 복잡한 감정들이 반전의 극대화를 위해 편집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여정은 강제규 감독의 디렉션을 큰 불만없이 따랐다. "이제는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는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윤여정은 "사람들은 배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라고 특별히 무언가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연기할 때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기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부드러운 매력·소녀 감성 연기
배우 특별한 직업이라 생각 안해
변치 않는 여유로 연기 즐기고파

"지금 저는 연기를 즐기는 단계예요. 나이 60이 넘은 뒤부터 일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룰을 정했어요. 지난번에 한 역할은 안 할 것, 그리고 작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할 것이요.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아프지 않고 아쉽지 않은 인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일을 즐기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제 인생은 보너스와도 같아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희드제이엠(김민주) 디자인/김가약

star bag

라디오 DJ 변신

가수 서영은이 KBS2 라디오 '그대 곁에 지금 서영은입니다'의 진행자가 됐다. 서영은은 "언젠가 꼭 DJ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무척 기쁘다. 청취자분들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그대 곁에 지금 서영은입니다'는 KBS2 해피FM 106.1㎒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된다.

첫 정규앨범 티저 공개

래퍼 산이가 데뷔 5년 만에 발표하는 첫 정규앨범 '양치기 소년' 수록곡 '#LuvUHater'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산이를 둘러싼 루머를 사실적으로 담은 장면으로 시작, 끝에 "안녕 헤이터스(Haters)"라는 음성으로 마무리된다. 앨범은 이달 말 발매 예정이다.

1년 7개월 만에 가수 컴백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 1년 7개월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박진영은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에서 최근 '언프리티랩스타'로 스타 반열에 오른 제시의 지원사격을 받는다. '어머님이 누구니' 음원은 SBS 'K팝스타 4' 방송 종료 직후인 12일 오후에 발매된다.

내달 2일 대규모 팬미팅

배우 이준기가 다음 달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1000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팬미팅은 오랜 시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한 자리로 이준기의 생일 파티도 함께 진행된다. 팬미팅 티켓은 9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봄바람 타고 다시 찾아온 '봄캐롤'

'벚꽃엔딩' '봄 사랑 벚꽃 말고' 또 역주행… 이문세 신곡 '봄바람' 음원 정상에

바야흐로 봄이다. 겉옷이 외투가 무겁게 느껴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다.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봄노래'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듯 몇 해 전부터 봄이 오면 거리에서 으레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있다. 일명 '봄캐롤'로 불리는 노래들 중 가장 유명한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엔딩'이다.

'봄캐롤'의 시초로 여겨지는 '벚꽃엔딩'은 2012년 3월 발매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시작과 함께 4년 연속 각종 음원 차트에 재진입, '벚꽃연금'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곡인 하이포(HIGH4)와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도 올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스테디셀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 역시 팬들의 사랑을 받는 '봄캐롤'이다.

이처럼 '봄캐롤'이 발매시기를 뛰어넘으며 꾸준히 사랑받자 '벚꽃엔딩'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봄 노래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버스커버스커

이문세

무려 13년만에 정규 15집 '뉴 디렉션(New Direction)'을 발표한 이문세는 후배 가수 나얼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봄바람'으로 앨범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봄바람처럼 살랑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등의 가사와 상큼한 멜로디는 '봄캐롤'로 불리기에 손색없다.

'봄캐롤'의 공통점은 제목이나 가사에서 봄을 감지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일 오전 기준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한 박효신의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는 "긴 겨울 끝의 봄날처럼 너에게 아플리"를 제외하곤 봄을 느낄만한 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미로운 박효신의 목소리와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만으로도 음악팬들에게 충분히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

또 PK헤만과 도로시 역시 6일 '벚꽃 밤'을 공개했다. 이 곡은 봄이 오는 것을 사랑에 대한 감정에 비유한 노래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노르웨이 숲도 지난달 31일 신곡 '봄에게'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숲만의 어쿠스틱 사운드로 봄의 따사로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지연기자 lynakim@metroseoul.co.kr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 내한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이 12년 만에 내한한다.

1975년 초연된 '시카고'는 19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며 전세계 34개 국 23개 도시에서 2만5792회 이상 공연되고 있다.

22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으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로 자리 매김 했다.

'시카고' 한국 공연은 2000년 초연 이후 올해 11번째 시즌을 맞았다.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이 내한해 또 한번의 흥행을 기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14인조 오케스트라는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정통 '시카고'를 선사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한 '시카고'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은 6월 20일~8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신효원기자 [illegible]

주지훈·김강우, 간신과 왕이 되다

민규동 감독 신작 '간신' 티저 포스터·예고편 공개

오는 5월 개봉을 확정한 영화 '간신'(감독 민규동)이 배우들의 연기 변신을 엿볼 수 있는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간신'은 연산군 11년 1만 미녀를 바쳐 왕을 쥐락펴락하려 했던 희대의 간신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그린 영화다. 주지훈이 간신 임숭재 역을, 김강우가 연산군 역을 맡았으며 임지연이 여자 주인공 단희 역으로 함께 했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수많은 미녀들 앞에 선 임숭재(주지훈)와 연산군(김강우)의 모습을 담았다.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의 간신 임숭재와 수많은 미녀들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연산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희대의 충신 편'으로 간신 임숭재의 간악함을 담아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간신 캐릭터를 맡은 주지훈의 연기 변신도 눈길을 끈다.

'간신'은 최근 홍콩 필름 마켓에서 대만에 선판매됐으며 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스크린X' 세계 시장 진출한다

CJ CGV 다면상영시스템 '시네마콘 2015' 첫 선

CJ CGV가 개발한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ScreenX)'가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CJ CGV는 7일 "스크린X가 오는 20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영화산업박람회 '시네마콘 2015'에 참가해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을 알린다"고 전했다.

스크린X는 CJ CGV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멀티 프로젝션이다. 기존 영화관이 정면에 보이는 하나의 스크린으로 상영한 것과 달리 스크린X는 정면과 좌우 벽면까지 확대한 270도 스크린을 활용해 몰입감을 최대화시킨 상영 방식이다.

'시네마콘 2015'에 처음 참여하게 된 스크린X는 세계 주요 극장과 스튜디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크린X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독창성을 어필할 예정이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 극장으로 스크린X 상영관을 확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CJ CGV 측은 "4DX가 시네마콘을 통해 데뷔한 뒤 빠른 확장 속도를 보인 것처럼 스크린X도 시네마콘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영토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스크린X를 설치해 'K-무비'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크린X는 현재 한국에 70여 개 상영관에 오픈해 있다.

/장병호기자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김성근 한화 감독 '유창식 氣 살리기'

"가능성 있는 기대주…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

김성근(73) 한화 이글스 감독이 좌완 유창식(23)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유창식은 올 시즌 초반 2경기에 나서 1패 평균자책점 9.95로 부진하다. 하지만 김 감독은 7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처럼 던지면 된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유창식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투수"라고 힘을 실어줬다.

유창식은 지난 1일 두산 베어스전에 중간계투로 나서 볼 15개를 연속해서 던졌다. 이는 레다메스 리즈(볼 16개 연속 투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불명예 기록이다. 그러나 김 감독은 5일 NC전 선발로 유창식을 내보내 기를 살렸다.

등판 결과는 좋지 않았다. 5⅔이닝을 던져 7피안타 6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김 감독은 "유창식은 좋은 투구를 했다. 5회까지는 1실점으로 막지 않았나"라며 "패했지만,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라고 유창식을 감쌌다.

지난달 21일 삼성 라이온즈와 시범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8피안타(1피홈런) 8실점을 하며 117개의 공을 던졌다. 시범경기에서 117개의 공을 던진 건 이례적이다. '혹사 논란'까지 였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유창식은 옆구리 통증으로 스프링캠프 기간에 열린 평가전에 나서지 못했다. 5선발로 낙점한 터라 투구 수를 늘릴 계획이었다"며 "애초 100개 정도의 실전 투구를 하고 불펜피칭을 추가로 소화하려 했지만, 유창식이 1~4회까지 연속 실점을 하면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유창식

김성근

유창식이 좋은 기억을 안고 마운드에서 내려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유창식이 5·6회를 연속 삼자범퇴로 막아내자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SK 와이번스 시절 김광현을 키운 김 감독은 현재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유창식에게 가능성을 발견했다. 제구력이 떨어지는 좌완 유망주 유창식이 어떻게 커 나갈지 기대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ML 개막전 추신수 무안타·강정호 벤치

다저스, 플린스 3점포 V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메이저리그 2015시즌 개막전에서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첫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다. 삼진도 한 차례 당했다.

텍사스는 오른손 투수 소니 그레이의 호투에 눌려 오클랜드에 1안타만 뽑은 채 0-8로 완패했다. 그레이는 8회까지 1안타와 사사구 두 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텍사스 타선을 봉쇄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합류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피츠버그는 이날 조시 해리슨(3루수)-그레고리 폴랑코(우익수)-앤드루 매커친(중견수)-닐 워커(2루수)-스탈링 마르테(좌익수)-페드로 알바레스(1루수)-프란시스코 서벨리(포수)-조디 머서(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꾸렸다. 피츠버그는 신시내티에 2-5로 무릎을 꿇었다.

류현진의 LA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개막전에서 3-3으로 맞선 8회말 터진 지미 롤린스의 3점 홈런에 힘입어 6-3으로 승리했다.

5년 연속 개막전 선발로 나선 클레이턴 커쇼와 샌디에이고의 에이스 제임스 실즈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끈 이날 경기에서 두 투수는 모두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커쇼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아내며 6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펼쳤으나 옛 동료 맷 켐프를 넘지 못했다. 켐프는 커쇼를 상대로 3타점을 쓸어담았다. /[illegible]기자

KLPGA투어 막 오른다

김효주 출격 9일 롯데마트 여자오픈 스타트

2015년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첫 대회가 제주에서 막을 올린다.

9~12일 제주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스카이·오션 코스(파72·6187야드)에서 열리는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다음으로 열리는 시즌 국내 개막전이다.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반가운 선수는 성공적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효주(20·롯데·사진)다. 지난 시즌 KLPGA 투어에서 5승을 올리며 상금왕 등 주요 부문 타이틀을 독차지한 김효주는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출전, 한국팬들에게 인사한다.

지난주 LPGA 투어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힘든 일정에도 세계 정상급 샷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효주와 ANA 대회에 함께 출전

한 허윤경(25·SBI저축은행), 전인지(21·하이트진로)도 출전해 국내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여기에 이정민(23·비씨카드), 김민선(20·CJ오쇼핑), 고진영(20·넵스) 등 지난 시즌 맹활약 했던 선수들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illegible]기자

위건, 성적부진 매케이 감독 경질

김보경 3부 추락 위기

김보경(사진)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위건 애슬레틱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말키 매케이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위건은 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매케이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팀을 이끈 매케이 감독은 그동안 승점 19를 따는데 그쳤다. 정규리그를 5경기 남긴 상황에서 챔피언십에 잔류할 수 있는 안전권에서 승점이 8이나 뒤져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시브 구단주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구단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케이 감독을 경질했다"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위건은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8승11무22패(승점 35)의 성적으로 리그 23위에 머물러 있다. 24개팀이 경쟁하는 챔피언십에서 22~24위 팀은 다음 시즌 리그1(3부리그)로 강등된다. 이번 시즌 종료까지 5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위건은 챔피언

십 잔류 마지노선인 21위 밀월(승점 43)과의 승점차가 8점이나 벌어져 있다. 위건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리그1으로 강등될 수 있다. /[illegible]기자

최경록 분데스리가 2부 데뷔전 2골1도움

최경록(20·장트 파울리)이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데뷔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장트 파울리는 7일(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밀레른토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2부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를 4-0으로 완파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최경록은 전반 9분과 16분 연속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6분에도 다니엘 부발라의 골을 도와 승리에 마침표까지 찍은 뒤 후반 24분 교체됐다.

이날 승리로 장트 파울리(16위)는 강등권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잔류 마지노선인 15위 1860뮌헨과의 승점차는 1점으로 줄었다.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는 "장트 파울리가 최경록의 영웅적인 활약에 힘입어 잔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면서 "최경록의 꿈같은 데뷔전이었다"고 보도했다. /[illegible]기자

'박범훈 의혹' 檢 칼끝 두산 겨냥

'두산그룹, 중앙대 인수 위해 압력' 정황 포착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앙대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 전 두산 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두산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이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된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합병 실무가 모두 위임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1년 4월 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날 이 전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현재 검찰은 이사회에 두산기업 구성원 또는 두산 관계자가 대다수 참석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산그룹이 중앙대 인수를 위해 학교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안국신 당시 중앙대 총장과 이사장인 박 회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에는 중앙대 이사장인 박 회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여기에 이태희 당시 두산 사장과 이병수 두산기계 사장을 포함해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그룹 관계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수 출신 이사들이었다.

이사회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히 안 총장은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의 세부 추진 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께 일임한다"고 제안했고, 이사들 모두 동의했다.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회장이 적십자간호대 합병 실무도 도맡을 수 있도록 이사회가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 실무에는 정원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었다.

법령상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를 4년제 중앙대와 합병하려면 전문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 간호대 합병후 의대와 약대, 종합병원과 합친 복합의료기관을 구축한다는 중앙대 계획에 지장이 될 만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대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런 제약을 풀어줬고 결국 3월 중앙대는 기존 간호대 정원 300명을 유지하면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의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이 두산엔진 사외이사를 맡은 점이나 부인이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에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은 점 등 유착 의혹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봄꽃 위의 눈꽃 7일 강원 산간에 때아닌 춘설(春雪)이 내린 가운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도로변 활짝 핀 개나리 위에 눈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뺑소니 당해도 보험처리 가능

사고 접수증 발급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후 즉시 발급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으로, 이 중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한 발급 건수는 1만6773건이었다. /복현명기자 hmbok@

충암고 교감 급식비 논란

"걸맞은 조치하겠다"

학생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무리하게 독촉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 교장이 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상국 교장은 이날 '급식과 관련된 학교장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 학교 급식에 관한 뉴스로 학부모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끼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지난 2일 교감이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인 교감에게 알아봤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암고가 지난 몇년간 학교 급식의 미납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한 뒤 "교감에게 중식지도를 하면서 미납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이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다치는 언행을 했다면 도저히 용납이 안될 것이고 모든 일은 교장인 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장에 따르면 해당 교감은 중식지원 대상 학생들은 미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하여 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을 충암고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교 측이 막말 논란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오는 오후나 내일 충암고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태극기에 소망 적는 여고생들 제9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작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형 태극기에 소망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法 "펀드판매시 전문투자자에게 손실위험 알려야"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 유치시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여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반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돼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신자산운용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000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책임비율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3600만원과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홍원기자 hong@